

또 광주발 '성과금 재분배' 마찰 왜?

지난해 광주시 서구청에서 촉발된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둘러싼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조의 마찰이 광주시청을 거쳐 북구청에서 재점화됐다. 유독 광주에서만 성과상여금 재분배 논란이 계속되면서 전국 공무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서구 갈등서 촉발...행자부 예규→시행령으로 강화
광주시 거쳐 북구 재점화...“첫 적발 사례” 무더기 징계 압박
“전공노위원장이 북구 소속이라 타깃된 것 아니냐” 주장도**

특히 북구청의 경우 행자부가 지난해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 후 이를 위반한 첫 사례로 지적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구청과 공무원노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발 성과상여금 마찰 또다시** 광주시=성과상여금 재분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임우진 서구청장이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노조 주도로 거둬 균등 분배하는 것은 불법적 행동”이라고 문제 삼으면서부터다.

서구청 노조는 당시 “민간 기업이 아닌 공직사회에 성과상여금제는 맞지 않고, 사유재산의 자율 분배라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도 침해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맞섰지만 서구청은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서구청의 성과급 재분

배 사례가 문제화되자, 같은 해 9월 예규에 있던 조항을 시행령(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상향했다.

지난 3월에는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성과상여금제 거부를 목적으로 한 대응 지침을 작성, 배포하면서 갈등이 확산됐다. 행자부는 조사반을 파견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관련된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 감사위원회도 자체 조사를 통해 인사위원회에 관련자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3월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금지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북구청의 경우 성과상여금 재분배 금지 조항이 시행령으로 강화된 이후 실제 행위가 확인된 첫 사례다. 행자부는 북구청에

조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향후 행자부 자체 조사와 감사기관의 감사 시에도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북구 상징적 압박 왜?**=30일 북구청 한 직원은 “행자부가 단단히 버르고 있어 직원들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북구청을 강하게 압박하는 표면적인 명목은 ‘제보된 첫 사례’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차원에서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을 진행했고, 전국 수십여 곳의 시·군·구에서 비슷한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독 북구청만을 타깃으로 겨냥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전공노 김주업 위원장이 북구청 소속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선출돼 임기를 시작했다. 행자부가 ‘불법단체’로 규정된 법외노조인 전공노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재분배 없었다” vs “정황상 맞다”**=북구청 노조는 구청이 재분배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성과상여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지난 29일부터 농성을 들어갔다.

노조 측은 “6~7월분 성과상여금을 통장으로 받기는 했지만 실제 재분배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8월 분 정상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북구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전공노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고, 법률자문 결과 재분배가 없었어도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구는 반납받은 성과상여금을 직원들에게 다시 돌려주면 8월 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하겠다는 임정인 반면 노조는 당장 8월 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며 맞서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섬유유연제 액상원료 유출에...

풍영정천 물고기 수백마리 떼죽음

하남산단 럭키산업 보관 부실

생활속 화학물질 유해성 논란

광주시 하남산단 입주업체인 럭키산업이 보관 중이던 섬유유연제 액상원료가 유출돼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집단폐사했다.

유독성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업체가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환경오염 사고라는 지적과 함께 물고기 집단 폐사를 불러온 생활 속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다.

30일 오전 6시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를 가로지르는 풍영정천(운남주공 9단지 인근)에 불어·잉어·피라미 등 물고기 500여마리가 죽은 채 떠올랐고 하천이 온통 흰 거품에 뒤덮였다. 인근 경찰과 광산구청, 광주시에 접수됐다.

관계당국이 풍영정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를 역추적한 결과,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인근 하남산단에 위치한 럭키산업으로 드러났다. 섬유유연제를 만들어 납품하는 업체 측 관리소홀로 저장탱크에 연결된 배관에 균열이 생겨 보관 중이던 액상원료 430kg이 새나왔고 우수로를 통해 1km가량 떨어진 풍영정천으로 유입된 것이다.

이번 물고기 떼죽음 사고와 관련해 산단

입주업체의 화학물질 관리소홀에 대한 비난과 함께 생활 속에서 늘 쓰이는 섬유유연제, 정전기 방지제, 헤어컨디셔너 등의 원료물질의 독성이 주목받는 분위기다. 우수관을 타고 대어저 시간에 걸쳐 줄줄 흘러든 ‘ELOTANT GIO50’이라는 섬유유연제 원료가 폭 10m 이상의 하천에 살고 있던 물고기를 모조리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섬유유연제의 원료의 유해성을 담은 문서를 보면, ‘반복 노출되거나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된다’, ‘특정 표적 장기에 손상이 올 수 있다’는 등 10여 가지 이상의 인체 유해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럭키산업 관계자는 “원료물질을 고의로 방류한 것은 아니며, 관리 소홀 측면이 크다.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원액에 물을 희석하는 만큼 반복 노출되거나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업체 측이 수질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외부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거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30일 광주 하남산단에 소재한 가정생활용품 제조업체인 (주)럭키산업에서 섬유유연제 원액 400여kg이 광산구 풍영정천으로 방출되면서 하얀 거품이 발생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 광산구청 직원이 죽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강봉 연결 ‘커피러’ 제대로 안조여졌다

‘철산대교 붕괴’ 감식...32개 중 16개 문제 ‘부실시공’

공사 도중 다리 상판이 기울면서 6명이 다친 영광 철산대교 붕괴사고는 강봉(쇠가둥)을 연결해주는 장치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시공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경찰은 향후 국토교통부의 구체적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30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결과 교각에 설치된 강봉을 연결하는 커피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러는 교각과 상판에 각각 설치된 32개의 강봉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너트 형태의 연결장치다. 경찰은 전체 32개의 커피러 중 16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수작업인

커피러 조임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공법·재질 등의 문제로 커피러가 느슨해져 강봉이 상판을 지탱하지 못하고 기운 것으로 보인다”며 “9월 중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추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시공업체인(주)대우건설과 하청업체 BNG건설, 철도공사 관계자 등 20여명 중 일부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8일 영광군 연산면 철산대교 공사현장에서 교각 상판 콘크리트 타설 공사 도중 다리 상판 일부가 기울면서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철산대교는 2012년 9월 착공해 201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공정률 47%였다. /영광=박현진기자 py4079@

하룻밤새 읍주·무면허운전에 충돌·뺑소니까지

차 2대 번갈아 타고 무법운전한 세무사

읍주·무면허·차량충돌·뺑소니... 하룻밤 사이 자신의 승용차 2대를 번갈아 타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50대 세무사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A(58)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풍암동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였다. 소주 한 병에서 시작된 술은 3시간이 흐르는 동안 6병으로 늘었고 급기야 1000ml 짜리 황칠담금주까지 비워냈다.

문제는 술자리가 파하던 9시께 A씨가 주변의 만류에도 자신의 외제승용차에 올라탄 것이다. 바로 근처가 우리 집이라는 외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식당을 벗어나지 불과 1분여 만에 50m도 못 벗어난 풍암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경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술기운에도 사고를 감지했던지 A씨는 10초간 멈춰섰다. 하지만, 이내 질주를 시작했고 1시간30분이 흐른 같은 날 밤 10시40분께 5km가량 떨어진 화정동 대주아파트 앞 오르막길에서 두 번째 사

고를 일으켰다.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충돌하면서 조모(70)씨 등 4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A씨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빈틈을 노려 겹싸게 달아난 것이다. 여기서부터 A씨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 나온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사고 차량을 주차해놓고 자신의 또 다른 차량인 코란도차량을 몰고 다시 위험한 질주를 펼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집을 출발한지 10분도 못돼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읍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가 차를 바꿔치기 하고 읍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그의 범죄 행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3주만인 지난 25일 결국 뿌린 대로 쫓겨감을 모두 치르게 됐다.

읍주측정 거부 당시 증거로 확보해둔 A씨 모습과 뺑소니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찍어둔 A씨 얼굴이 같다는 점을 극적으로 확인한 경찰이 그의 사상적인 읍주사고 전과, 읍주사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차량 바퀴 못으로 구멍 내고 출동 경찰엔 망치로 위협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바퀴에 못을 박아 구멍을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망치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서명.

○...30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정모(36)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30분께 광양시 태인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5대의 조수석 뒷바퀴에 못을 박아 손

괴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를 휘둘른 혐의.

○...2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씨는 “인공위성에서 텔레파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최근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정씨 가족의 진술에 따라 혐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

/광양=김경원기자 kkw@

평택 토지 전문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되 후회 없습니다.

평택 토지 매매

- ① 평택 고덕면 당현리 (고덕신도시 5분) / 토지 613평 ▶ 매가 5억 8천 235만
- ② 평택시 고덕면 동천리 (고덕신도시 5분) / 2,223평 (평당 35만) ▶ 매가 7억 8천 178만
- ③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고덕신도시 5분) / 775평 (농림지역) 도로 물림, 계획관리지역 옆 ▶ 매가 8억 5,250만
- ④ 진위면 마산리 / 314평 (투자 A급) 진위역과 LG산단, 마산단지 지번 ▶ 매가 3억 7천 680만
- ⑤ 진위면 마산리 / 301평 (전) 마산산단 25만평 정문 앞쪽 ▶ 매가 5억 2천
- ⑥ 평택시 지산동 (송탄 터미널 3분) 빌라, 오피스텔 개발부지 추천 / 193평 ▶ 매가 12억 6천만

경기도 평택시 (전원주택지)

송탄 소방사거리 1분 !! 토지 - 1,61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급 입지 조건 ※ (총 7 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3억 → 1억 투자시 가능 (용 2억) ※ 개발시 순수익 5억 ▶ 매가 16억

경기도 화성시 (공장부지)

정남 IC 5분 !! 평수 - 1,770평 현재 허가중 (현재 공장부지 최고의 도시) ※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10억 (평당 56만)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을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

- 토 151평, 건 43평
- 영광 터미널 5분 (농가주택 최적합!!)

▶ 매가 8천 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우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용 5천) □ 매가 4억 4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
- 전남 영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 보증금 600만 월 60만 □ 매가 1억 6천 (용 5천)

062-527-7600 010-6834-4800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 경매 물건 추천 ★

- ① 북구 중흥동 (근린시설) 토 222평, 건 136평 수입자동차 정비소, 광주역 1분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3천
- ② 광산구 신창동 (다가구 원룸) 토 70평, 건 108평 신창중 정문, 신축건물 틈 11개 - 월수익 350만 ▶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3억7천
- ③ 전남 장성 북하면 (식당건물) 토 280평, 건 253평 백암산 관광지 입구, 식당밀집지역 ▶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5억5천

경매교육

- 기본이론을으면서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오피스
- 입찰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 경매 실전 교육 ☆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치권, 가압인자권,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직원 구함

부동산 경매 관심있으신분
공인중개사 환영
실전 경험자 우대, 환영